

월/요/광/장

안진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9분 만에 170 발의 총탄을 난사해 33명을 숨지게 한 조승희 사건의 원인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미국사회에서 성공한 한인가정의 23세 젊은 청년을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으로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어떤 이는 총기 소지를 합법화한 미국사회가 문제이며 강력한 총기규제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는 미국사회에 존재하는 빈부격차와 인종차별이 문제이며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한 방으로 생명을 앗을 수 있는 총기 소지를 인정하는 문제는 필자 같은 생명존중론자의 딜레마다. 미국사회에선 범행을 위한 총기사용보다는 범죄방지를 위한 경우가 더 많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병든 사회, 병든 청년

다. 이번 참사도 캠퍼스에서 모든 형태의 총기소유를 금지해 피해규모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떻게든 총기규제 문제가 조승희 사건의 본질은 아닌 것이다. 조승희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미국의 성인 영주권자다. 전과경력이 없었고 총기소유를 허용하지 않을 만큼의 정신질환자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사사에서 2명에게 총격을 가한 뒤 무차별 총기 난사를 위해 이동했던 2시간 반 사이에 우체국에서 NBC에 보낸 동영상 메시지도 없었다. 언론의 상업적 태도로 CNN을 통해 거의 생중계로 보냈던 조승희의 동영상 테이

프는 관리이기 이전에 절규였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자살을 준비한 그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억눌리며 정신이 병든 청년의 어이없는 행동이 이번이었던가?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의 반사회적인 행동과 폭력적인 행동은 이미 한계수위를 넘어선 듯하다. 연일 보도되는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함께 떠오르는 것은 나만의 유별난 걱정일까?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시간보

인 사회에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는 것은 분노의 감정만 키울 뿐이다. 빈부격차로 양극화된 사회, 차별과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 소외의 그늘에서 분노를 삭이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라는 비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까? 어느 틈엔가 우리사회도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 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업가적 인간만이 칭송받게 되었고 IMF 이후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빈곤과 소외의 단은 더 늘어날 것이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이주노동자만도 3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사회도 미국사회에서 유색인종이 겪는 차별 못지 않게 소외와 차별을 받는 이주민의 자녀들이 있다. 병든 미국사회가 만들어낸 외톨이가, 억눌리고 소외당하며 커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사회의 하층민으로 편입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부터 없애는 것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광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기초질서 확립으로 건강한 광주 만드자

최근 광주의 기초질서 수준을 보면 '문화수도'와 '예향'이라는 명성이 민망할 정도다. 거리는 주차장을 방불할 만큼 불법 주·정차가 판을 치고 있다. 대로상의 무단횡단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고, 도심은 불법 광고물과 전단, 담배꽂초 등 각종 쓰레기로 도배되다시피하고 있다. 과연 광주가 문화수도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기초질서 문화가 엉망이다. 기초질서는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다. 거리질서가 엄격하기로 이름 난 싱가포르의 경우 문화수도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기초질서 문화가 엉망이다. 기초질서는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다. 거리질서가 엄격하기로 이름 난 싱가포르의 경우 문화수도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기초질서 문화가 엉망이다.

부과기로 하는 등 불법 노점상 및 주정차·광고물 단속 등 대대적인 기초질서 지키기에 나섰다. 광주도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일반적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주에서는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가 열린다. 지금과 같은 무질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광주가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비칠 지 두렵기조차 하다. 광주가 선진문화도시로 정착될 수 있는가는 시민들의 작은 질서 의식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질서 확립에는 단속과 더불어 시민 스스로의 의식 개혁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질서유지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문화수도 위상에 걸맞은 준법정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나부터 작은 기초질서를 지킬 때 광주가 진정한 예향과 의향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승연회장 '보복 폭행' 진상 솔직히 밝혀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김 회장은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로 보복 폭행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김 회장의 행적은 충격적이다. 김 회장은 폭행당한 둘째 아들의 양육권을 위해 변호인들을 대동하고 술집에 찾아가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지켜냈다. 김 회장은 직접 폭행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폭행을 당했다면 고소와 고발 등 공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상식이다. 김 회장은 상식을 벗어난 변호인들을 동원해 직접 응징에 나섰다.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폭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불법행위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재벌총수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한심하다.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김 회장이 폭행을 지시하고 직접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비롯 경찰의 수사 및 검찰 종업원에 대한 회유·협박, 납치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 술집 종업원들과 한화 측의 주장이 맞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진상을 밝혀내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의지다. 사회적 도덕이 연루된 사건마다 '부자기 수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형식적 수사와 경찰청장을 역임한 한화그룹 고문의 전화로비설, 김 회장의 출구 등을 둘러싸고 술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재벌그룹의 총수는 공인이다. 김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죄한 만큼 진실을 밝힌 뒤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거짓 진술과 어설픈 변명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해선 우리 사회의 '반(反) 재벌 정서'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 밝혀야 한다. 김 회장이 폭행을 지시하고 직접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비롯 경찰의 수사 및 검찰 종업원에 대한 회유·협박, 납치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 술집 종업원들과 한화 측의 주장이 맞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진상을 밝혀내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의지다. 사회적 도덕이 연루된 사건마다 '부자기 수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형식적 수사와 경찰청장을 역임한 한화그룹 고문의 전화로비설, 김 회장의 출구 등을 둘러싸고 술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재벌그룹의 총수는 공인이다. 김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죄한 만큼 진실을 밝힌 뒤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거짓 진술과 어설픈 변명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해선 우리 사회의 '반(反) 재벌 정서'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김경진

검사가 된 이후 가끔 학창시절의 옛 친구들을 만나 소주잔을 맞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만취하다보면 어느 친구의 입에선가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 "어릴 적 코흘리개였던 네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로 취한, 참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사이다" 취한 정신에도 곰곰 생각해 본다. 그 친구 말대로 내가 검사를 하는 것은 나 역시 예상치 못했다. 과연 내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인지. 나도 그렇고, 주변의 동료나 후배 검사들도 그렇고 사건 한건 한건을 힘겹게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의무로 보지, 그것을 권한으로 보지는 않는다.

숙성이 혼재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의 사물에서 자기에게 귀찮은 것·불리한 것·피곤한 것·자기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우선적으로 보고,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 이득 되는 것은 보지 못하거나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차적으로 인식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다. 가령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누구나 우러러 보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인 반면 대통령 본인에게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인생의 목표였을지는 모르지만 취임 이후에는 엄청난 책임과 결단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 고독감 등이 다가오고 체감할 것이다.

검사가 권력자라구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양측의 주장과 각자 제시하는 증거가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가운데, 무엇이 진실인가를 최선을 다해 판명하려고 노력하는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반면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그러한 검사의 고뇌하는 과정보다 최종적으로 검사가 내리는 판단 내지 결과에 따른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보고 검사를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 왜 이렇게 큰 시각차이가 나는 것인가? 왜 검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당사자들은 검사의 업무처리를 권한이라는 시각에서 보는가? 그 이유는 결국 검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기 때문이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면 '권한일 수도 있고,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고통스러운 업무'일 수도 있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좋은 속성과 나쁜

좋은 것에는 항상 어려운 것·힘든 것·치러야 할 높은 비용 등이 항상 같이 따라 다니기 마련인 것이다. 이 두 가지 항상 동시에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생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격수양의 첫걸음이 아닌가 한다. 이런 이유로 잘난 사람, 벼슬 높은 사람, 부자인 사람, 조직의 책임자인 사람은 절대로 일이 힘들다 부럽해서 안 될 것이다.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에 따르는 고통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반면 현재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무언가 목표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이 고통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영적, 지적, 육체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히 준 선물이라고 생각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균형 잡힌 사고야말로 1인당 국민소득 2~3만 불 시대를 여는 선진국민으로서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광주지검 부장검사>

책 표지에 '권장 연령대' 표기하면 어떨까

가끔 가족들과 새로 나온 책을 구경하고 사기 위해 서점에 들르곤 한다. 그런데 서점에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어떤 책이 좋을지 또 아이들은 어떤 책을 즐겨 읽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고민하게 된다. 같은 종류의 책이 많은데 어른 입장에서 대충 골라서 사다보면 뒤늦게 집에 와서 책이 어려워 이해가 안된다거나 너무 시시해서 못 보겠다는 등 불만이 많다. 대형서점은 고객 연령에 도서 종류에 따라 코너가 나름대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동용 도서나 학생용 도서는 아예 권장 연령대를 책표지에 표기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요즘 영화는 물론 TV 드라마까지 시청 연령대가 표기되어 있어 아이들의 시청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아이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 추천도서 목록과 함께 독자 권장 연령대를 표기해 학부모들이 책을 고르기 쉽게 해 주었으면 한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충동>

기고



최익주

전반적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농협이 돌고리를 찾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각종 신도봉이 기념일을 제정, 오이와 오리·삼겹살·사과·배 등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를 들어 1월1일은 '배의 날'이었다. 새해 첫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새배'이니, 절(拜)을 하면서 배를 나눠먹자는 의미이다. 5월2일은 '오이데이' 또는 '오리데이'로, 오이와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건강도 챙기자는 행사가 줄고 있다. 특히 5월2일을 앞뒤로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오이와 오리고기의 효능과 우수성을 알리는 시식

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물의 기념일을 만드는 데서 만족해서는 안된다. 이들 기념일을 디딤돌로 해당 농축산물이 재고를 받고 많이 팔릴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촉진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단 하루의 '반짝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5월2일을 앞뒤로 오이와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 전남농협도 구도청 앞 소공원에

신토불이 기념일 제정 소비촉진을

회, 오리 전시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지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경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철석을 연상시키는 양력 7월7일은 '연인의 날' 혹은 '떡의 날'로 자리를 잡았다. 이밖에 여름철 복날에는 복숭아를 먹으며 더위를 물리치자는 마케팅이 등장했고, 농협 목우촌 '도래오래'를 비롯한 통닭 체인업체에서는 모이를 주기 위해 닭을 부르는 소리에서 착안해 9월9일을 '치킨 데이'로 정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일련의 농축산물 기념일들은 해당 농축산물을 연상시키는 날짜나 발음에서 따와 기억하기가 쉽고 우리 농축산물 애용정

서 '신토불이 축산사랑운동' 발대식에 이어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 한마당잔치를 펼칠 예정이다. 농협은 한국오이생산자협회와 손잡고 '오이주간'을 지정하고, '먹는 오이에서 즐기는 오이로'라는 슬로건 아래 오이의 건강기능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신토불이 기념일을 찾아 우리 농축산물이 건강에도 좋다는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한다. 아울러 평소 소비촉진운동에도 적극 참여, 개방과도로 위기를 맞은 우리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 <농협전남지역본부 공제보험팀장>

옳지 않은 지명, 언론부터 바로 잡아 사용해야

신문과 방송에서 '중동'이라는 지명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중동(中東·middle east)이라는 지명은 완전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사람들의 사관(史觀)일뿐이다. 과거 유럽인들은 아시아를 편의상 극동아시아, 중동 아시아, 근동 아시아로 3등분해서 불렀는데, 그 중 하나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처지에서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보면 유럽은 '극서 아시아'가 될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지명은 특정 지역의 관점이 아닌 세계 모든 나라가 인정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회 교과서에서는 '극동'은 '동부아시아'로 부르고, '중동'은 '서남아시아'로 쓰고 있다.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서남아시아'라고 하는 교과서적 지명보다, 석유하면 떠오르는 '중동'이라는 지명이 더욱 익숙해보일 수는 있겠지만 언론이 앞장서서 비공식적인 중동이라는 지명을 계속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굳이 석유와 관련해서 그 지역명을 강조하고 싶다면 차라리 좀더 구체적으로 '페르시아만 연안'이라는 지명을 사용하면 낯지 않을 거 생각한다. <유일숙·광주시 동구 수기동>

無等鼓

지난 2004년 사망한 정서은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의 실재를 최초로 공개한 인물이다.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정 할머니는 14살 때 주재소에 갇혀 있던 아버지를 풀어주겠다는 동네 구장의 말에 속아 위안부로 끌려갔다. 스스로 위안부임을 인정하는 자기 고백은 엄청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정 할머니 외에도 지난 2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수, 김근자 할머니 같은 사람이 바로 그들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80세란 노령에도 불구하고 두달만에 또 다시 미국땅을 찾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서기 위해 사.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8일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위안부 실상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잘 알려졌듯 아베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는 1950년대 두 차례나 일본 총리를 지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다. 기시는 일제의 괴뢰정부인 만주국 정부의

산업부차관을 거쳐, 1941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내각에서 상공장관을 지냈다.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A급 전범으로 기소됐다가 석방된 뒤 친미주의자로 변신했다. 기시는 평화헌법의 전범 금지 위안부로 끌려갔다. 스스로 위안부임을 인정하는 자기 고백은 엄청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정 할머니 외에도 지난 2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수, 김근자 할머니 같은 사람이 바로 그들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80세란 노령에도 불구하고 두달만에 또 다시 미국땅을 찾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서기 위해 사.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8일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위안부 실상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잘 알려졌듯 아베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는 1950년대 두 차례나 일본 총리를 지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다. 기시는 일제의 괴뢰정부인 만주국 정부의



이용수와 아베

1970년 폴란드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바르샤바의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때까지도 독일의 침략성을 의심하던 세계는 브란트의 사과를 지켜보면서 독일의 진심을 읽었다. 이웃 일본과 언제나 역사의 화해를 하게 될 지 답답하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